

지역 매 아리

부안군, 계화쌀 상표 등록 완료

부안군 계화면은 1990년대 계화미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유채경관단지과 연계한 계화쌀 상표등록을 추진한 결과 상표와 업무표장 등록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계화면은 지난 1년여간 계화쌀 위상 확립을 위한 전략적인 행정 추진으로 '유채가 만든 계화쌀', '유채가 만든 계화미', '유채가 만든 쌀' 등 3종을 상표등록 해 독점 사용 권한을 향후 10년간 갖게 됐다.

이는 권리와 된 브랜드로 계화유채쌀 명품화와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계화면은 이밖에 상표등록한 브랜드를 제3회 계화유채축제에 그리고 벗꽃이아기 개최 시기에 맞춰 제작·출시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계획이다. 또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개정 후 계화면 생산지단체 및 농협과 사용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출시, 고가전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창조 계화면장은 "계화쌀이 전국 최고의 밥맛을 지녔으나 그 명성이 퇴색했다"며 "이제 유채쌀 상표 사용에 전문교육을 확보한 만큼 계화쌀의 옛 명성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화면은 전국 최대 유채경관단지를 활용해 벼 재배 표준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재배농가와 PC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강화해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으로 계화 유채쌀을 전국 최고의 쌀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기업유치 발품행정 본격 돌입

권익현 부안군수, 광주광역시 하남·첨단과학산단 향우기업 방문 투자여건 집중 설명

권익현 부안군수는 19일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와 광주첨단과학산단 입주에 입주한 향우기업을 방문해 부안제3농공단지 내 투자여건을 집중 설명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터를 잡은 부안 출신 기업인(썬)아 백희종 대표와 (썬)DH글로벌 이정권 대표 등을 만나 부안제3농공단지 투자 및 부안군 중소기업 우수 중간재 구매 등에 협조를 당부하고 공장 시찰 등을 진행했다.

(썬)아는 계열사 3곳과 중국·미국 등 해외법인 4곳을 갖추고 해동기, 전자레인지, LED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썬)DH글로벌은 OEM 방식과 자체 브랜드로 냉동고, 제습기, 김치냉장고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썬)DH글로벌 이정권 대표는 부안군 상서면 출신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에 장학금 4000만원을 기탁했으며 소속직원 94명이 정기후원 회원(CMS)에 가입하기도 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방문에서 부안



권익현 부안군수가 19일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와 광주첨단과학산단 입주에 입주한 향우기업을 방문해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다.

제3농공단지가 서해안 고속도로 등 물류적 접근성이 뛰어나고 새만금지구,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등과 연계 가능한 최적의 공장입지임을 중점 부각하고 투자유치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위해 향우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부안제3농공단지를 조기 분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군분투'

고창로컬JOB센터·주민자치회, 업무협약 체결

고창로컬잡(JOB)센터(센터장 김희진)와 고창군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창)가 19일 로컬잡(JOB)센터 회의실에서 '고창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갖고 고창군 일자리 창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구인·구직자 공동 발굴과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 고창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 세부 협력사항으로는 고창군 내 14개 읍·면 비경제활동인구, 구직 희망자를 함께 발굴하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로 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요 농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주요 정보를 로컬잡센터에 전달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창군주민자치위원회 김영창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회의와 로컬잡(JOB)센터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내 구인·구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고창 시대를 열어가길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 회의 개최

정읍시는 최근 정신건강 관련 사회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망 확보를 위해 19일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 회의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응급상황 시 효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소를 주축으로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정신 응급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각 단 계별 기관의 역할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 대응 인력들의 안전보장 방안과 응급상황 시 진료 가능 여부 확인 등 상호 협력 사항을 협의하고 정신

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고위험군 사례 공유 등 실제적인 협조 사항들이 도출됐다. 시는 앞으로도 참여 기관들과 함께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들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등 응급상황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자와 가족,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정신질환 관련 상담을 원할 시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2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535-210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1기분 자동차세 고지

고창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0억 9200만원(1인당 9775대)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기분 부과액 20억 800만원보다 8400만원(4.2%)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 5월말 기준 약 3만6133대(전년대비 530대 증가)에 달하는 자동차 등록 현황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연납 부과분 19억6500만원을 포함하면 40억원 이상을 부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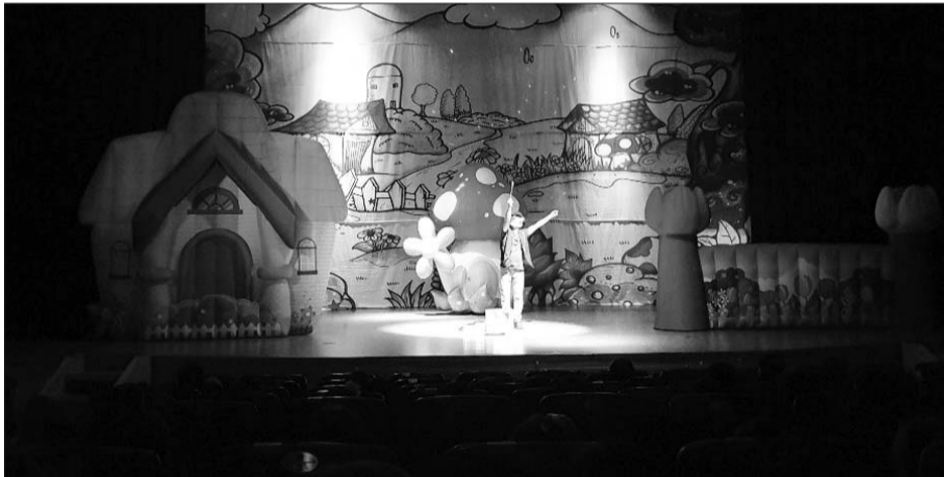
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납부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돼 체납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세정팀(560-2478)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가 제74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19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뮤지컬 탈 인형극을 공연했다.

정읍시보건소, 뮤지컬 탈 인형극 공연 가져

정읍시보건소가 제74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19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뮤지컬 탈 인형극을 공연했다.

인형극은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연에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미술공연과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뮤지컬 형식의 인형극인 '치카치가 충치캐비 저리가, 흡연 예방을 위한 인형극' '담배는 안돼요! 담배 연기 싫어요'가 펼쳐졌다.

3회에 걸쳐 진행된 공연은 어린이

들의 순수한 마음이 무대 위의 인형들과 하나가 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유아기는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형극을 통해 구강 관리법과 올바른 잇솔질 방법, 흡연의 폐해 등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사업자 모집

부안군은 외국인 및 젊은층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외래 관광객의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대형음식점 관광객 수용태세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장당 시설개선비용의 60%까지 최대 6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및 젊은이들이 불편해 하는 좌식테이블 위주의 음식점 시설을 개선해 80석 이상의 입식테이블을 갖추고 관광진흥부흥상 관광식당으로 지정돼야 한다.

관광식당 지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

자를 뒤야 하고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 메뉴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이 구비돼야 하며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여 화장실을 구비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시설을 개선해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시군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063-580-4449)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찻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